

중등 「가정」 교사 임용시험 문항 분석 - 평가 영역별 평가 내용 요소를 기준으로 -

정상희* · 박미정** · 채정현***1)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청덕중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An analysis of examination items for secondary Home Economics teaching certification - Focusing on evaluation content elements of Home Economics -

Jung, Sang-Hee* · Park, Mi-jeong** · Chae, Jung-Hyun***1)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Cheongdeok Middle School***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rends of HE exam questions through analyzing the examination items for secondary Home Economics(HE) teaching certification from 2002 to 2011.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analysis on pedagogy of HE course, it accounted for 30.9% of the total questions, and recently, it increased to 35%. Regarding the ratio of questions by each evaluation element, 'practice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HE course'(33.2%) had the highest ratio, and 'essence of the education of HE'(3.2%) had the lowest ratio.

Second, regarding the analysis on eating habits, it amounted to 17.5% of the total questions, and recently reached 15%. With regard to the ratio of each evaluation element, 'cooking theory and practice'(26.1%) had the highest ratio, and 'culture of eating habits'(3.7%) had the lowest ratio.

Third, regarding the analysis on clothing habits, it accounted 15% of the total questions, and recently reached 12.5%. With regard to the ratio of each evaluation element, 'clothing management'(25.1%) and 'production of clothing and living necessities'(25.1%) had the highest ratio, and 'selection of clothing and self-expression'(3.0%) had the lowest ratio.

1) 교신저자: Chae, Jung-Hyun, San 7 Darakri Gangnaemyeon Chungbuk 363-791 The Republic of Korea
Tel: 043-230-3758, Fax: 043-231-4087, E-mail: jchae@knue.ac.kr

Fourth, regarding the analysis on housing life, it accounted for 11% of the total questions, and recently reaches 12.5%. With regard to each evaluation element, 'the understanding of housing life culture'(22.5%) had the highest ratio, and 'the understanding of housing interior design'(10.7%) had the lowest ratio.

Fifth, regarding the analysis on daily life as a consumer, it accounted for 12.4%, and recently reaches 12.5%. With regard to the ratio of each evaluation element 'management of domestic resources'(34%) had the highest ratio, and 'planning of entire life and domestic welfare'(0%) had the zero ratio.

Sixth, regarding the analysis on family life, it accounted for 13.3% of the total questions, and recently reaches 12.5%. With regard to the ratio of each evaluation element, 'the understanding of family and the changes in family'(23.8%) had the highest ratio, and 'marriage and the development of family'(2%) had the lowest ratio.

Key words: 중등교사 임용시험(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for secondary school), 중학교 가정과 교사(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 평가 영역별 평가 내용 요소(evaluation content elements), 가정과교육 문항(home economics education item), 출제 비율(ratio of ite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은 교사라는 중요변인이 교육내용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양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과의 인격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총체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다(백인경, 왕석순, 2009). 특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처럼, 교사의 질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며 교육의 성패는 곧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므로, 질 높은 교사를 양성·확보·유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질 높은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질 높은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를 통해 세계를 보게 하고, 그 교과와 더불어 삶의 의미와 가치에 접근하게 하며, 그 교과에 의해서 삶의 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이다(이돈희, 윤희원, 조영달, 권오량, 우정호 외, 1994). 즉, '학생에게 이 교과를 왜 가르쳐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등의 질문에 명료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 분야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의미한다(김유정, 2004).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교사자격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교원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이하 '임용시

험'이라 칭함)'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예비교사들에게 동등한 임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실시된 임용시험은 1992학년부터 2011년도 현재까지 스물 한 차례에 걸쳐 치러졌다.

그러나 기존의 임용시험은 각 과목별로 출제 영역 및 수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매년 출제 위원에 따라 출제 방향 및 영역별 출제 비율의 차이가 심하여, 평가의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빈번히 제기되어 왔다(장인라, 2010). 이에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각 전공별 학회의 공동 연구로 2009년도부터 임용시험이 개편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교사 임용 시험의 타당도, 신뢰도, 공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출제근거인 '평가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각 교과별로 개발한 것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임용 상세화 기준이 개발된 이후의 임용시험에 대한 연구는 여러 교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즉 디자인·공예과(박선영, 2009), 수학과(정석영, 2009), 영어과(김아영, 2011), 정보·컴퓨터과(여지원, 2009), 화학과(장인라, 2010) 등이 있다. 반면에 가정과의 경우, 개편된 임용시험에 분석에 대한 연구는 김미경(2010)이 가정경영·소비자학을 중심으로 임용시험 출제 문항을 분석한 연구가 유일하다. 김성숙과 채정현(2007)과 김영남 외(2004)가 중등 가정과 임용시험 출제 문항을 분석하였으나 1999학년부터 2004년까지의 문항에 국한하였다. 이에 임용 상세화 기준이 개발된 이후 가정과 전

영역의 문항이 평가 내용 요소 별로 골고루 다양하게 출제되었는지 분석하고 상세화 기준이 개발되지 않은 때와 비교하여 평가 내용 요소의 다양화와 균등화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임용 상세화 기준’을 기본 잣대로 하여,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2002년도부터 2011년도 현재까지의 10년간의 가정과 임용시험 출제문항을 분석하고 임용 상세화 기준이 평가 내용 요소의 다양화와 균등화의 문제를 해결하였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정과 임용시험 출제위원회에게는 문항을 고르게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가정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에게는 출제경향을 파악하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 가정과 임용시험의 각 분야별(가정과교육학,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 가족생활) 평가 내용 요소에 따른 문항 수, 배점 수, 비율, 출제 내용을 알아본다.

둘째, 임용 상세화 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7년간의 각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과, 임용 상세화 기준이 적용된 후인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의 각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의 차이를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등 교원 임용 제도의 의의 및 변천 과정

중등 교원 임용²⁾은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

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칙 아래(교육공무원법 제 10조), 현재 3단계의 전형 체제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임용제도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균등한 교원임용 기회 제공, 양성기관에 따른 차별임용 폐지, 경쟁시험을 통한 보다 우수한 교원의 선발 및 교원양성 교육기관의 면학 분위기를 쇄신하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교원을 임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교육공무원법, 2011; 허숙 외, 2004).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격자를 선별할 수 있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선발제도의 구축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등 교원 임용제도의 기능에 대해 이윤식(1993: 60-61)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사 자격자를 선별하는 기능이다. 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교단에 설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인정하는 교사자격 부여제도가 소극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조천수, 2007), 신규교원 임용제도는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바람직한 교원으로서의 능력, 태도, 자질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현장의 요구와 필요에 보다 합당한 교사를 선발해 내는 적극적인 기능이다.

둘째, 교육현장에 필요한 교원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선발·충원하는 기능이다. 즉, 교육현장에서 교원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만큼의 교사 자격자를 선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수요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적절한 인원을 선발하여 충원해줌으로써 교육활동의 원활한 전개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교원양성기관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다. 이는 신규교원 임용제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에서의 교육내용과 방법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 일반인들의 교직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다. 신규교원 임용제도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운영 등에 있어서 전문성, 엄격성, 공정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사회 일반인들의 교원임용 뿐 아니라 교사와 교직사회 전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교원임용은 교직의 결원을 충원하는 활동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해임, 파면 등 교원의 신분에 관한 대부분의 조치를 포함하는, 교육인사행정의 포괄적이고 중심적인 개념이다(교육공무원법, 2011; 조천수, 2007).

1963년, 교육공무원법이 전면 개정되어 제11조 1항에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원임용에서 국립양성기관 졸업자와 상급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이 제도는, 국공립 양성기관 재학생에게 학비 혜택과 졸업 후 임용에서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많은 인재들을 교원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행되었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 학생 인구의 급증으로 교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공립 양성기관을 통한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 간극을 보충하기 위해, 3개의 사립 사범대학 설립을 인가하고 일반대학에 교직과정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다. 1973년 교육평준화 대책으로 채택된 교원 신규임용 순위고사를 실시하여 국·공립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순위고사에 합격해야 신규임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시행 초기 부족한 교원의 충당에 큰 역할을 했던 사립 사범대학의 증가는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였다. 80년대부터 인구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학생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사범대학 졸업자 수는 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원의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립 사범대학 졸업생들은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 우선 임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 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인 “신규교사의 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평등권과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는 헌법 내용에 위배된다며 1989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듬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우선 채용 규정은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와 일반 대학 교직과정이수자가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게 되어 결국 교육 공무원이 되고자 한 자를 그 출신 학교의 설립 주체나 학과에 따라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판시하며 이를 받아들였다.

1990년 12월 18일 개정된 공무원법은 신규교사 임용에 대해 “신규교사의 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말한다.”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 공무원 임용령 제9조에 명시함으로써 국·공립 사범대학과 사립 사범대학의 차별을 철폐하였다. 그 결과, 국·공립 및 사립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무시험검정으로 받게 되는 교

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임용시험을 통해 교사로 진출할 수 있는 현재의 개방형 중등 교원양성과 공개경쟁 시험의 임용체계가 확립되었다(이정아, 2008).

그리하여 1992학년도부터 실시되어온 신규교원 임용시험은 1997년도부터 2단계 전형체제로 실시되어 1단계는 교육학 및 전공과목 필기시험, 2단계는 논술 및 면접과 수업실기 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나, 2009년도부터 시험 전형이 3단계로 개정되면서 1단계는 교육학 및 전공 선택형 필기시험, 2단계는 논술형 시험, 3단계는 교직 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의 3단계 전형체제로 시행되고 있다.

2012년 2월 교과부는 중등임용시험의 경우, 객관식 과목을 폐지하고 교육학 논술을 신설하고 논술형 전공과목도 서답형으로 출제방식을 개선키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2013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교과부는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3급)’을 부과, 2013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대학저널, 2012).

1)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특징

중등 교원 임용시험은 대한민국의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각 시·도 교육청의 주관으로 실시된다. 중등 교원 임용시험은 사전 예고제에 따라 매년 시험일 6개월 전까지 선발예정교과 및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고 있으며, 매년 시험일 20~30일 전에 고사 일정, 고사 장소, 과목별 수급인원, 배점배율, 응시자격, 원서제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각 시·도 교육청별로 공고한다.

시험방식을 살펴보면, 2009년 개정 이전에는 1단계 필기시험과 2단계 논술·면접으로 이루어졌으나, 2009년 개정 이후에는 1단계 교육학 및 전공 선택형 필기시험, 2단계 논술형 시험, 3단계 교직 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의 3단계 전형체제로 시행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현재 시험 진행은 1단계·2단계·3단계 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성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으나, 2012학년도부터는 최종 합격자 선정방법이 개선되어,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는 1단계 시험의 성적은 제외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인 2단계 시험 및 수업능력 등

을 평가하는 3단계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는 교사 임용후보자의 선발단계부터 수업능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여 교육역량 등이 우수한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현행 임용시험의 출제 지침을 살펴보면 1차 시험에서는 전공과 교육학을 5지선다형의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전 영역에 대한 전문적이고 균형적인 지식을 겸비한 교사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과교육학에서 25~35%, 교과내용학에서 65~75%의 비율로 출제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논술형의 필기시험의 2차 시험은, 전공에 대한 실제적 적용 능력과 교직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교육학 50%, 교과내용학 50%의 비율로 출제되며, 교과내용학 분야의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교육학 분야와 통합하여 출제한다(김아영, 2011). 3차 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평가로 나누어진다. 심층면접에서는 교사로서의 적성·교직원·인격 및 소양을 점검하고, 수업능력 평가에서는 ‘과정안 작성’과 ‘수업 실연’ 등을 통하여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과 자질을 평가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다음으로, 2009년도부터 시행된 각 시·도 교육청 중등 교원 임용시험의 시험과목, 문항 형식, 문항수, 시험 시간, 문항

배점, 출제 비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차 시험의 출제 과목은 크게 전공과 교육학으로 구분되고, 2차 시험은 전공 과목만으로 구성된다. 전공은 다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나누어지는데, 1차 시험의 경우 교과교육학이 30~35%(약 14문항), 교과내용학이 65~70%(약 26문항) 정도 출제된다. 2차 시험에서는 교과교육학이 35~55%로 비중이 다소 높아지며, 교과내용학은 45~65%로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한다.

다음으로 문항 당 배점을 살펴보면, 1차 시험의 교육학(공통)은 문제당 0.5점으로 균일하나, 전공은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 1.5점, 2.0점, 2.5점으로 차등 배점되어 있다. 2차 시험은 문항 당 25점으로 총 4문항을 평가하고, 3차 시험의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평가는 2012학년도부터 상향조정되어 평가된다. 이상 3차에 걸친 평가체제에 따라 1차 성적은 최종 합격 성적에 포함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의 통과 여부만 결정하게 되며, 1차 성적을 제외한 2차와 3차 점수만을 종합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2. 중등교원 임용시험 문항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문항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의 분석

<표 1> 중등 임용시험의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배점

구분	시험 과목	문항 형식	문항수	시험 시간	문항 배점	총점	출제비율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
1차	교육학 (공통)	선택형 (5지선다)	40문항	70분	0.5점	-	-	-
	전 공	선택형 (5지선다)	40문항	120분	1.5점 2.0점 2.5점	-	25~35%	65~75%
2차	전 공	논술형 (I)	2문항	120분	20~30점	50점	35~55%	45~65%
		논술형 (II)	2문항	120분	20~30점	50점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원으로서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상향조정	-	-
	수업능력평가	수업실연 및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상향조정	-	-

결과 중등교원 임용시험은 문항 출제의 다양성과 균등성의 문제(김아영, 2011; 박선영, 2009; 정석영, 2009), 전공과목의 난이도가 해마다 다른 문제(김미경, 2010; 정석영, 2009)가 드러났다.

반면에 장인라(2010)와 여지원(2009)은 임용시험 개정안 시행 이후 시험의 경우에는 매년 출제위원에 따라 출제 문항이 한 영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감소되어 출제 경향이 다양화되었고, 모든 교과목이 개정안 이전에 비해 미출제 영역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여, 2009년도 개정안 시행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임용시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석영(2009)은 대학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출제기준을 세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 사범대 전공과의 교육과정을 조합하여 전공과목들에 대한 평가요목을 제시하고, 임용시험이 그 기준에 맞게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김아영(2011)은 임용시험 1차 문항 수를 조절하거나, 세부 영역별 출제 비율을 제시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들 연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박선영(2009)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디자인·공예교원의 임용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용시험에 출제되는 문항의 내용이 특정 요목에 편중되어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그녀는 문항 출제의 다양성과 균등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공예화회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와 연대하여 디자인·공예분야의 연구 내용과 방법을 살피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지한 평가 영역을 기준으로 전문가를 위촉하여 연구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석영(2009)은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수학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2009년도의 개정 시행된 임용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한 2009년도 수학과 임용시험 모의평가를 분석하여 평가문항의 내용별 분포와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전공과목의 난이도가 해마다 다르며, 각 평가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사범대 수학교육과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출제기준을 세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 사범대 수학교육과의 교육과정을 조합하여 수학 전공과목들에 대한 평가요목을 제시하고, 임용시험이 그 기준

에 맞게 시행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김아영(2011)은 영어과 중등교원 임용시험 기출문항을 영역 및 세부항목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매년 일반영어와 영어교육학이 가장 높은 비율로 출제되고, 세부항목별 분석에서는 영어읽기영역이 매년 15% 이상 출제되는 반면, 영미 소설이나 희곡 등의 영역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는 등 영역별 편중이 심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세부영역의 고른 출제가 필요하나, 지금과 같은 40문항 안에서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임용시험 1차 문항 수를 조절하거나, 세부 영역별 출제 비율을 제시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여지원(2009)은 2009년도 임용시험의 정보·컴퓨터 표시 과목에서 출제된 문항을 전공 영역별로 분류하고 영역별 비중과 배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출제 문항은 출제 의도대로 각 과목별 영역에서 출제 비율이 고르게 출제되었고, 과목별 배점의 경우 9개 과목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국가 수준에 맞는 일관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과목의 과목명이 '정보'로 변경되면서, 교육과정도 소프트웨어의 단순 활용에서 정보 윤리 교육의 강화 및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과학으로서의 교육을 지향하게 되었으므로, 2007년 개정 취지와 내용에 적합한 문항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장인라(2010)는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화학과 임용시험 출제문항을 2009년도 전·후로 나누어, '표시과목 『화학』의 교사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정안 시행 이전 시험의 경우에는 매년 출제위원에 따라 출제 문항이 한 영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감소되어 출제 경향이 다양화되었음을 볼 수 있었고, 모든 교과목이 개정안 이전에 비해 미출제 영역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여, 2009년도 개정안 시행으로 1차 시험에서 예비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과목별 비중의 차가 있으므로 이를 고르게 분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각 교과목별 세부 영역에서 출제율이 낮은 영역은 '표시과목 『화학』의 교사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에서 제거하며, 통합형 문항을 위한 세부 영역을 추가하는 등 일정 기간마다 '표시과목 『화학』의 교사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영남, 조재순, 이해자, 조병은, 윤인경, 채정현(2004)은 '중등 가정교사 임용시험의 출제 문항 분석'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임용시험 문항을 각 분야별(가정교과교육, 식생활, 의생활, 아동·가족학, 소비자학, 가정관리)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교과교육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문항이 지식의 적용력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식생활 분야는 영양 파트가 식품 또는 조리 파트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의생활 분야는 해마다 출제위원의 전공에 따라 특정 과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의복재료와 관리와 의복구성에 치중하여 문항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며, 각 분야를 골고루 출제하도록 하는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아동·가족학 분야는 많은 부분을 중등학교 교과서 내용에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 대학에서 다루는 내용의 문제를 더 많이 출제하여야 하고, 아동학과 가족학을 연계시키는 통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도 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생활 분야는, 문항 수와 점수 비율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고르게 출제된 편이나, 중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실내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코하우징 등에 대해서 출제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자학 분야에서는 거의 매년 한 문항씩 출제되었으며, 주로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었다. 가정관리 분야에서는 거의 매년 한 문항씩 고른 내용으로 출제되었으나,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은 다양한 가족생활주기와 특수가족의 자원관리 방법, 의사소통,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김성숙과 채정현(2007)은 2001년에서 2007년도까지의 가정과 임용시험 문항 중에서 교과교육학 문항만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과교육학의 단일별 출제비율과 문항형태, 문항의 행동영역과 내용의 포괄성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와 제안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 임용시험에서 차지하는 교과교육학 문항의 출제비율은 2005년도 이후 30%의 고정적인 비율을 보였으

며, 가정과교육학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교육과정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문항형태를 보면 2005년도 이전에는 단독형태의 한 문항과 여러 소 문항으로 구성된 복합문항이 양립하였으나, 2005년도 이후에는 100% 단독문항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는 가정과교육학 문항 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가정과 교육과정 문항을 행동영역 관점에서 볼 때, 대다수의 문항이 '단순지식의 암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복합지식 또는 이해와 적용'을 요하는 수준의 문항 출제를 제안하였다. 포괄성의 측면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상 표면적으로 제시된 내용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철학적·이론적 배경, 다양한 교육과정 원리를 활용하는 문항내용 등과 같이 좀 더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으로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김미경(2010)은 '가정경영·소비자학' 영역 관련 문항을 분석 대상으로 2001년에서 2009년도까지의 가정과 임용시험을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의 분석결과 가정과 임용시험에서 '가정경영·소비자학' 영역이 차지하는 문항 수는 비교적 일정하나, 전체 문항 수에 대한 비율은 일정하지 않을뿐더러 다른 평가 영역과 비교해 출제 비율이 유동적이었다. '가정경영·소비자학' 영역 문항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별로 분석한 결과, 특히 각 평가내용요소들 간에 출제비율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교과의 종류와 관련없이 임용시험 문항은 균등성과 다양성, 평가영역의 편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중등 임용시험 평가내용요소 상세화를 제시한 이후 임용시험이 매년 출제위원에 따라 출제 문항이 한 영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감소되어 출제 경향이 다양화되었고, 모든 교과목이 개정안 이전에 비해 미출제 영역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여, 2009년도 개정안 시행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의 경우 2009년도 임용시험 개정안 이후에 임용고시 문항이 평가내용요소에 따라 특정 영역에 치중하지 않고 균등하고 다양하게 출제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분석 대상과 표집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가정과 임용고사 중 1차 시험의 전공 영역 출제 문항이다. 10년간 가정과 임용고사 문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를 통해 전집으로 수집하였고, 이렇게 수집된 총 문항 수는 263개다.

2. 분석 절차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중등 가정과 임용시험의 각 분야별(가정교과교육학,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 가족생활) 출제 문항 수와 배점을 파악하여, 중등 가정과 임용시험에서 각 분야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보았으며, ‘임용 상seite 기준’을 분석 틀로 중등 가정과 임용시험의 분야별 세부 영역의 문항 수, 배점 수, 비율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임용 상seite 기준’의 평가 내용 요소를 확인하여 2009년도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7년간의 출제 비율과 2009년도 개정안이 적용된 후인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3년간의 출제 비율을 비교·분석하여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임용시험의 ① 전공영역별 각 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분석 결과 ② 출제 과목별 세부 영역의 문항 수·배점 수·비율에 대한 분석 결과 ③ 평가 내용 요소에 따른 2009년도 전과 후의 출제 비율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문항 분석 과정에서 가정교과 전공 교수 1인과 가정교과 전공 박사학위를 받은 교사 1인이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정과교육학 분야

1) 가정과교육학 분야의 연도별 출제 비율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출제된 가정과교육학 분야의 문항 수는 87문항(238점)으로 전체 가정과 임용시험 배점 중에서 30.9%를 차지하였다. 가정과교육학 분야의 배점 비율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2004년도를 제외하고는 줄곧 30%를 유지해오다가, 임용 상seite 기준이 발표된 2008년도 이후 35%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2) 가정과교육학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가정과교육학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를 분석한 내용은 <표 2>에서 보듯이, 가장 많이 출제된 평가 내용 요소는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실제’(33.2%)였고, 그 다음으로 ‘가정과 교육과정의 이해’(30.8%), ‘가정과 평가방법과 실제’(19.1%), ‘가정과 교사의 전문성’(6.7%),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3.6%), ‘가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활용’(3.4%), ‘가정과교육의 본질’(3.2%)의 순이었다.

가정교육학의 평가 내용 요소별로 2009년에서 2011년 동안의 문항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가정과 교육의 본질’에서는 브라운(Brown)이 제창한 가정학의 사명에 대한 내용이, ‘가정과 교사의 전문성’에서는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내용과 장학의 한 유형인 마이크로티칭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가정과교육과정의 이해’에서는 주로 제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실제’에서는 협동학습, 실천적 추론 학습 등과 같은 교수·학습방법의 형태에 대한 내용과 오슈벨의 유의미학습, 가네의 수업사태 등과 같은 교수·학습이론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표 2〉 가정과교육학 평가 내용 요소에 따른 문항수, 배점, 비율 분석

문항수(배점)

기본이수 과목 및 분야	평가내용 요소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비율
가정과 교육의 철학과 교사의 전문성	가정과 교육의 본질				2 (4)				2 (3.5)			4 (7.5)	3.2
	가정과 교사의 전문성							1 (4)	2 (4)	2 (4)	2 (4)	7 (16)	6.7
가정과 교육과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이해	1 (4)	2 (8)	2 (7)	2 (8)	2 (7)	3 (12)	3 (8)	3 (6)	4 (7.5)	3 (6)	25 (73.5)	30.8
	학교교육 과정의 개발과 운영	2 (6)							1 (2.5)			3 (8.5)	3.6
가정과 교수학습 및 평가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과 실제	1 (6)	2 (7)	2 (5)	3 (8)	3 (11)	2 (8)	2 (8)	3 (6)	4 (8)	6 (12)	28 (79)	33.2
	가정과 평가방법과 실제	1 (3)	2 (6)	2 (4)	1 (4)	2 (6)	1 (4)	1 (4)	2 (4)	3 (6.5)	2 (4)	17 (45.5)	19.1
	가정과 교수학습 자료개발 및 활용	1 (2)							1 (2)	1 (2)	1 (2)	4 (8)	3.4
계		21	21	16	24	24	24	24	28	28	28	238	100

‘가정과 평가방법의 실제’에서는 서술식 채점 척도인 루브릭에 대한 내용과 5점 평정법으로 평가했을 때 발견될 수 있는 오류 유형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그밖에 진단평가, 문항유형,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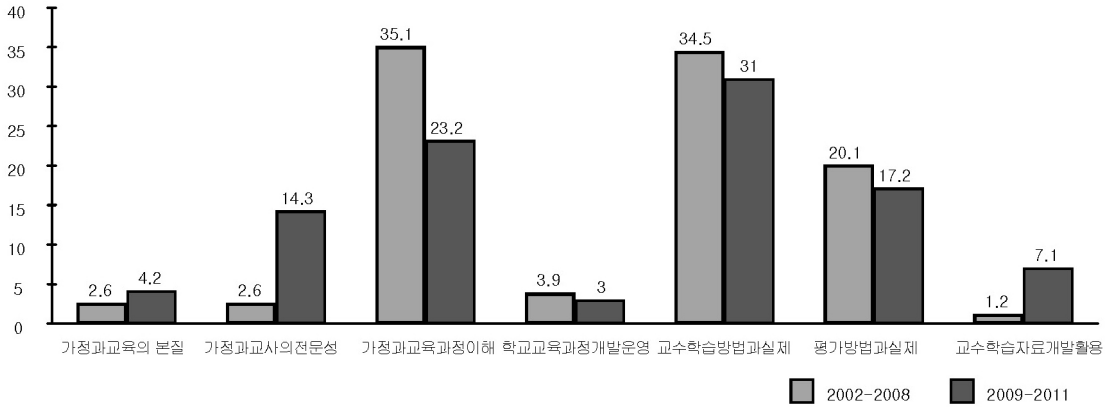
‘가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활용’에서는 교수매체의 분류와 활용에 관한 내용과 e-스토밍, 블렌디드 러닝과 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용한 수업과 관련된 교수전략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위의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가정과교육학 분야는 평가 내용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해가 갈수록 다양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나 아직도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방법의 요소는 많이 출제되고 가정과교육의 본질이나 학교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요소는 별로 출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

으로 모든 평가 요소가 골고루 출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3)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과 이후의 가정과교육학 분야의 배점과 비율 비교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의 가정과교육학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보듯이,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에는 ‘가정과 교육과정의 이해’(35.1%),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과 실제’(34.5%), ‘가정과 평가방법과 실제’(20.1%)의 세 요소에 편중되어 대부분의 문항이 출제되었고 ‘가정과 교수·학습 자료개발 및 활용’(1.2%), ‘가정과교육의 본질’(2.6%), ‘가정과교사의 전문성’(2.6%)은 출제 비율이 낮았다.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후에는 ‘가정과 교육과정의 이해’(23.2%)와 ‘가정과 교수·



[그림 1]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과 이후의 가정과교육학 평가 내용 요소별 비율 비교

학습 방법과 실제(31%), ‘가정과 평가방법의 실제’(17.2%)의 출제 비율이 낮아지면서 ‘가정과교사의 전문성’(14.3%), ‘가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활용’(7.1%), ‘가정과교육의 본질’(4.2%)은 상승해, 각 평가 내용 요소별로 고르게 문항을 출제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인라(2010)와 여지원(2009)의 결과와 유사하며 임용시험 개정안이 그동안의 출제 영역의 편중과 다양화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고 사료된다.

2. 식생활 분야

1) 식생활 분야의 연도별 출제 비율

2002년에서 2011년까지 출제된 식생활 분야의 문항 수는 51문항(134.5점)으로 전체 가정과 임용시험 배점 중에서 17.5%를 차지하였다. 식생활 분야의 연도별 총점 대비 출제 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0~24.3%로 비교적 높은 출제 비율을 보이던 식생활 분야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한때 18.8%까지 상승했던 것을 제외하고 줄곧 15~15.5%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2) 식생활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식생활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비율은 <표 3>에 서 보듯이, ‘조리원리 및 실습’(26.1%), ‘영양과 영양소’(17.8%), ‘식사요법’(13.4%), ‘식생활 관리’(10.8%), ‘식품저장 및 가공’(10.4%), ‘식품의 특성과 선택’(7.4%), ‘생애주기 영양’(5.9%), ‘영양평가 및 교육’(4.5%), ‘식생활 문화’(3.7%)의 순이었다.

식생활의 평가 내용 요소별로 2009년에서 2011년 동안의 문항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영양과 영양소’에서는 식품 에너지의 체내 경로에 대한 내용과 단백질 효율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생애주기와 영양’에서는 청소년기의 1일 영양 필요량, 식행동, 영양문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식사요법’에서는 변비와 소화 장애의 원인, 임상적 증상, 식이요법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식생활 관리’에서는 권장식사패턴을 이용한 식단의 예시를 통해 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식품의 특성과 선택’에서는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품표시의 이해에 대한 내용이, ‘조리원리 및 실습’에서는 식혜와 경단, 죽편과 치즈, 캔디 등의 다양한 조리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3)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과 이후의 식생활 분야의 배점과 비율 비교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의 식생활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임용 상세화 기준 이전에는 ‘조리원리 및 실습’(23.5%)과 ‘영

〈표 3〉 식생활 평가 내용 요소에 따른 문항수, 배점, 비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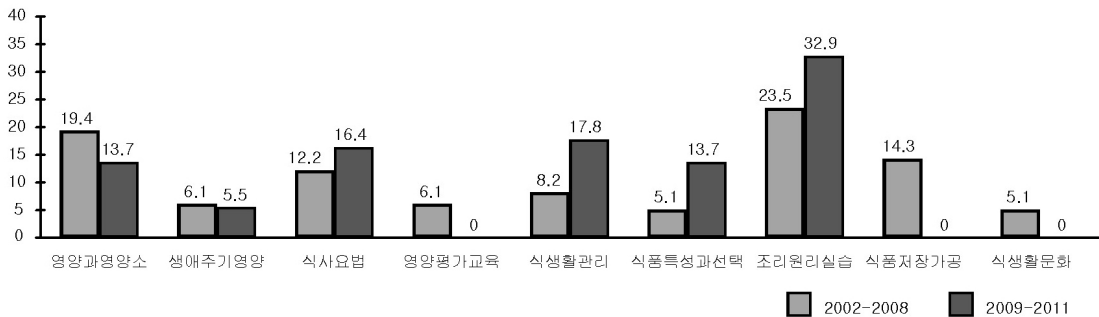
문항수(배점)

기본이수 과목 및 분야	평가내용 요소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비율
영양학	영양과 영양소	1 (5)	2 (5)		1 (3)	1 (4)		1 (2)		1 (2.5)	1 (2.5)	8 (24)	17.8
	생애주기 영양			1 (3)			1 (3)		1 (2)			3 (8)	5.9
	식사요법	1 (6)	1 (3)				1 (3)		1 (2)	1 (2)	1 (2)	6 (18)	13.4
	영양평가 및 교육				1 (3)		1 (3)					2 (6)	4.5
	식생활 관리			2 (5)	1 (3)				1 (2.5)	1 (2)	1 (2)	6 (14.5)	10.8
식품과 조리	식품의 특성과 선택			1 (2)		1 (3)			1 (2)	1 (1.5)	1 (1.5)	5 (10)	7.4
	조리원리 및 실습	1 (3)	1 (3)	2 (4)		2 (6)	1 (3)	1 (4)	2 (4)	2 (4)	2 (4)	14 (35)	26.1
	식품저장 및 가공			1 (2)	1 (3)		1 (3)	2 (6)				5 (14)	10.4
	식생활 문화		1 (4)	1 (1)								2 (5)	3.7
계	14	15	17	12	13	15	12	12.5	12	12	134.5	100	

양과 영양소(19.4%)의 출제 비율이 높았으며, ‘식품의 특성과 선택’(5.1%)과 ‘식생활 문화’(5.1%)는 출제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임용 상세화 기준 이후에도 ‘조리 원리 및 실습’(32.9%)의 출제 비율은 가장 높았고, 낮은 출제 비율을 보였던 ‘식생활 관리’(17.8%)와 ‘식품의 특성과 선택’(13.7%)

의 출제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식품 저장 및 가공’, ‘식생활 문화’, ‘영양평가 및 교육’의 출제 비율은 0%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식생활 분야는 임용 상세화 기준 이전과 이후 평가 내용 요소가 균등하고 다양하게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과 이후의 식생활 평가 내용 요소별 비율 비교

3. 의생활 분야

1) 의생활 분야의 연도별 출제 비율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출제된 의생활 분야의 문항 수는 41문항(115.5점)으로 전체 가정과 임용시험 배점 중에서 15%를 차지하였다. 의생활 분야의 연도별 총점 대비 출제 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3.8~20%의 큰 폭으로 유동적인 출제 비율을 보이다가 2007년도 이후 점차 안정적인 비율을 보이면서 최근 2년간 12.5%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2) 의생활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의생활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은 <표 4>에서 보듯이, 가장 많이 출제된 평가 내용 요소는 ‘의복관리’(25.1%),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25.1%)이었고 다음으로 ‘의복관리’(22.4%), ‘의복재료의

이해’(15.6%), ‘의복 디자인’(14.3), ‘복식문화’(14.3%), ‘의복과 환경’(5.2%),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3.0%)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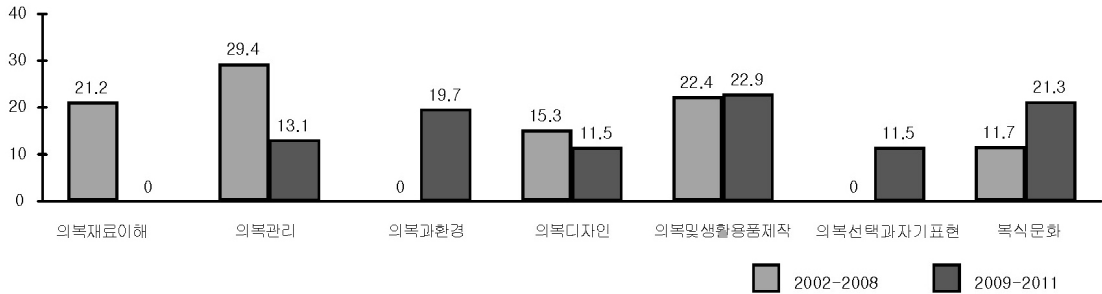
의생활의 평가 내용 요소별로 2009년에서 2011년 동안의 문항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의복관리’에서는 섬유의 특성에 따른 의복관리방법이, ‘의복과 환경’에서는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인체반응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의복을 착용하는 방법이 출제되었다.

‘의복 디자인’에서는 의복디자인 및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체형에 따른 패션코디네이션 방법에 대한 내용이,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에서는 서양의복구성에 대한 내용과 청스커트를 기방으로 리폼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에서는 상황에 따른 의복착용 사례의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는 의복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복식문화’에서는 한국복식에서 표현되는 상징의 미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한국의 복식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표 4> 의생활 평가 내용 요소에 따른 문항수, 배점, 비율 분석

기본이수 과목 및 분야	평가내용 요소	문항수(배점)										총 배점	비율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의복 재료와 관리	의복 재료의 이해	1 (2)		1 (4)	1 (2)	1 (4)	1 (3)	1 (3)				6 (18)	15.6
	의복관리	1 (6)	1 (4)	2 (7)		1 (4)		1 (4)		1 (2)	1 (2)	8 (29)	25.1
	의복과 환경								1 (2)	1 (2)	1 (2)	3 (6)	5.2
의복의 제작 및 선택	의복 디자인	1 (2)		2 (5)	1 (3)		1 (3)		1 (2)		1 (1.5)	7 (16.5)	14.3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	1 (4)	1 (5)		3 (7)		1 (3)		1 (2.5)	1 (2.5)	1 (2)	9 (26)	22.5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								1 (2)	1 (1.5)		2 (3.5)	3.0
	복식문화					1 (3)	1 (3)	1 (4)	1 (2)	1 (2)	1 (2.5)	6 (16.5)	14.3
계		14	9	16	12	11	12	11	10.5	10	10	115.5	100



[그림 3]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과 이후의 의생활 평가 내용 요소별 비율 비교

3)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과 이후의 의생활 분야의 배점과 비율 비교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의 의생활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3]에서 보듯이, '의복 관리'(29.4%)와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22.4%), '의복재료의 이해'(21.2%)에서 주로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의복과 환경'과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에서는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후에도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22.9%)은 여전히 높은 출제 비율을 보였으나, 미출제 평가 내용 요소였던 '의복과 환경'(19.7%),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11.5%)의 출제 비율이 상승하면서 '의복재료의 이해'를 제외한 평가 내용 요소에서 비교적 고르게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주생활 분야

1) 주생활 분야의 연도별 출제 비율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출제된 주생활 분야의 문항 수는 31문항(84.5점)으로 전체 가정과 임용시험 배점 중에서 11%를 차지하였다. 주생활 분야의 연도별 총점 대비 출제 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도의 5.7%에서 2005년도의 12.5%까지 상승하여 2007년도까지 유지되다가 2008년도에 가장 높은 비율인 13.8%까지 상승한 이후, 2009년도에는 11.9%로 낮아졌고 최근 2년 동안은 12.5%의 비율을 보였다.

2) 주생활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주생활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은 <표 5>에서 보듯이, '주거생활문화의 이해'(22.5%), '주거환경과 관리'(21.3%), '주거의 선택과 계획'(18.9%), '주거 실내디자인의 실제'(13.6%), '주거와 사회'(13.0%), '주거 실내디자인의 이해'(10.7%)의 순이었다.

주생활의 평가내용 요소별로 2009년에서 2011년 동안의 문항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주거생활 문화의 이해'에서는 주거환경심리, 주거가치, 주거행동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주거의 계획과 선택'에서는 평면도와 같은 주택설계도면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주택설계와 관련된 기호에 대한 내용이, '주거환경과 관리'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방법과 실내환경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주거와 사회'에서는 코하우징, 친환경주거, 노인주거에 대한 내용이, '주거실내디자인의 이해'에서는 장애인주거를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 입각하여 개조해야할 곳과 적용 가능한 디자인 원칙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주거실내디자인의 실제'에서는 실제로 주거공간을 계획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3)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과 이후의 주생활 분야의 배점과 비율 비교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의 주생활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4]에서와 같이 '주거의

〈표 5〉 주생활 평가 내용 요소에 따른 문항수, 배점, 비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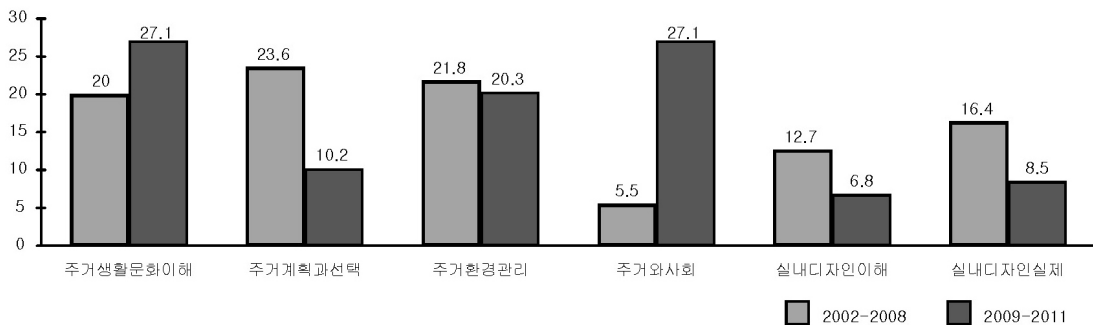
기본이수 과목 및 분야	평가내용 요소	문항수(배점)										총 배점	비율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주거와 실내 디자인	주거생활 문화의 이해					1 (3)	1 (4)	1 (4)	2 (4)	1 (2)	1 (2)	7 (19)	22.5
	주거의 계획과 선택	1 (4)	1 (5)					1 (4)		1 (1.5)	1 (1.5)	5 (16)	18.9
	주거 환경과 관리			2 (5)	1 (4)		1 (3)		1 (2)	1 (2)	1 (2)	7 (18)	21.3
	주거와 사회					1 (3)			1 (1.5)	1 (2)	2 (4.5)	5 (11)	13.0
	주거실내 디자인의 이해				1 (3)	1 (4)			1 (2)			3 (9)	10.7
	주거실내 디자인의 실제				1 (3)		1 (3)	1 (3)		1 (2.5)		4 (11.5)	13.6
계		4	5	5	10	10	10	11	9.5	10	10	84.5	100

계획과 선택’(23.6%), ‘주거환경과 관리’(21.8%), ‘주거생활문화의 이해’(20%)에서 주로 많은 문항이 출제되었고, ‘주거와 사회’(5.5%)의 출제 비율은 제일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후에는 ‘주거생활문화의 이해’(27.1%)와 더불어 ‘주거와 사회’(27.1%)의 출제 비율이 제일 높았으며, ‘주거실내디자인의 이해’(6.8%)와 ‘주거실내 디자인의 실제’(8.5%)는 출제 비율은 낮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주생활 분야는 임용 상세화 이전과 크게 문항의 균등화와 다양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5. 소비생활 분야

1) 소비생활 분야의 연도별 출제 비율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출제된 소비생활 분야의 문항 수는 36문항(95.5점)으로 전체 가정과 임용시험 배점 중에서 12.4%를 차지하였다. 소비생활 분야의 연도별 총점 대비 출제 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8.6%에서 15.7%의 유동적인 출제 비율을 보이던 소비생활 분야가, 점차 편차가 작아져 현재의 12.5%로 수렴하고 있다.



[그림 4]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과 이후의 주생활 평가 내용 요소별 비율 비교

〈표 6〉 소비생활 평가 내용 요소에 따른 문항수, 배점, 비율 분석

기본이수 과목 및 분야	평가내용 요소	문항수(배점)										총 배점	비율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가정경영	가정관리 체계		1 (3)						1 (2)	1 (2)		3 (7)	7.3
	가정자원 관리	2 (6)	1 (3)	1 (3)	2 (4)	2 (7)	1 (3)	1 (4)			1 (2.5)	11 (32.5)	34.0
	생애설계와 가정복지											-	0.0
소비자학	가계경제의 이해와 재무관리								2 (3.5)	2 (4.5)	2 (4)	6 (12)	12.6
	소비자 의사결정				1 (4)				1 (2)	1 (1.5)		3 (7.5)	7.9
	소비자 교육		1 (5)	2 (4)	1 (3)	1 (4)		1 (4)	1 (2)	1 (2)	2 (3.5)	10 (27.5)	28.8
	소비문화						2 (6)	1 (3)				3 (9)	9.4
계		6	11	7	11	11	9	11	9.5	10	10	95.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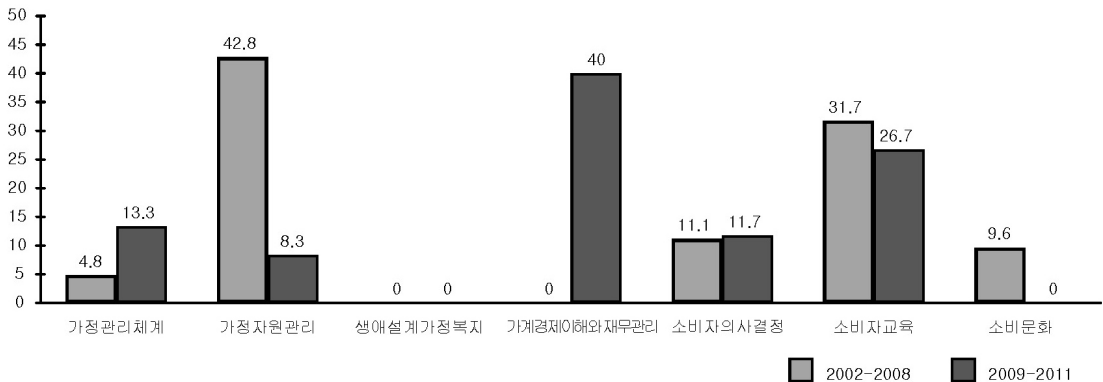
2) 소비생활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소비생활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은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자원 관리’(34%), ‘소비자교육’(28.8%), ‘가계경제의 이해와 재무관리’(12.6%), ‘소비문화’(9.4%), ‘소비자 의사결정’(7.9%), ‘가정관리 체계’(7.3%), ‘생애설계와 가정 복지’(0%)의 순이었다.

소비생활의 평가내용 요소별로 2009년에서 2011년 동안의 문항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가정관리체계’에서는 가정관

리체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이, ‘가정자원 관리’에서는 시간 관리의 원리에 따라 중요도와 긴급도를 고려하여 해야할 일의 우선순위를 나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가계경제의 이해와 재무관리’에서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생활설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가계재무관리에 관한 내용이, ‘소비자 의사결정’에서는 소비자 정보의 특징과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소비자 교육’에서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소비자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내용 등이 출제되었다.



[그림 5]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과 이후의 소비생활 평가 내용 요소별 비율 비교

3)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과 이후의 소비생활 분야의 배점과 비율 비교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의 소비생활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자원관리’(45.5%)와 ‘소비자교육’(30.3%)에서 대부분의 문항이 출제되었고, ‘생애설계와 가정복지’와 ‘가계경제의 이해와 재무관리’에서는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후에는 ‘가계경제의 이해와 재무관리’(40.6%)에서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되었으나, ‘소비문화’에서는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6. 가족생활 분야

1) 가족생활 분야의 연도별 출제 비율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출제된 가족생활 분야의 문항 수는 37문항(102.5점)으로 전체 가정과 임용시험 배점 중에서

13.3%를 차지하였다. 가족생활 분야의 연도별 총점 대비 출제 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15.7%로 가장 높은 출제 비율을 보였고, 2003학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2.5%에서 23.8%의 출제 비율을 보이다가 최근 3년간 가정과 임용시험에서는 12.5%의 고정된 출제 비율을 보였다.

2) 가족생활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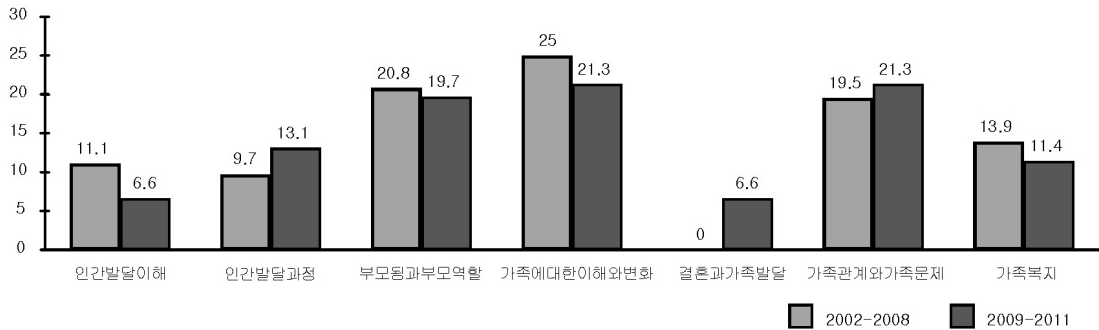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가족생활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은 <표 7>에서 보듯이,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23.8%), ‘부모 됨과 부모 역할’(20.5%), ‘가족관계와 가족문제’(20.0%), ‘가족복지’(13.2%), ‘인간발달 과정’(11.1%), ‘인간발달의 이해’(9.8%), ‘결혼과 가족발달’(2%)의 순이었다.

가족생활의 평가내용 요소별로 2009년에서 2011년 동안의 문항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인간발달의 이해’에서는 인간발달의 특성과 원리에 대한 내용이, ‘인간발달 과정’에서는 생애주기별 발달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부모 됨과 부모역할’에서는 ‘효율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위

<표 7> 가족생활 평가 내용 요소에 따른 문항수, 배점, 비율 분석

기본이수 과목 및 분야	평가 내용요소	문항수(배점)										총 배점	비율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인간발달	인간 발달의 이해		1 (5)				1 (3)			1 (2)		3 (10)	9.8
	인간발달 과정							2 (7)	1 (2.5)		1 (1.5)	4 (11)	10.7
	부모됨과 부모역할		1 (4)	1 (4)	2 (5)		1 (2)		1 (2)	1 (2)	1 (2)	8 (21)	20.5
가족학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	1 (4)				2 (7)	1 (3)	1 (4)	1 (2)	1 (2)	1 (2.5)	8 (24.5)	23.8
	결혼과 가족발달								1 (2)			1 (2)	2.0
	가족관계와 가족문제	1 (3)		1 (2)	1 (3)	1 (4)	1 (2)		1 (2)	1 (2.5)	1 (2)	8 (20.5)	20.0
	가족복지	1 (4)		1 (3)	1 (3)					1 (1.5)	1 (2)	5 (13.5)	13.2
계		11	9	9	11	11	10	11	10.5	10	10	102.5	100



[그림 6]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과 이후의 가족생활 평가 내용 요소별 비율 비교

한 체계적 훈련(STEP)에서 제시하고 있는 완벽한 부모의 정의, 자녀의 발달시기에 따른 부모역할, 부모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에서는 가족의 기능, 부부권력, 가족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결혼과 가족발달’에서는 배우자 선택 과정에 대한 내용이, ‘가족관계와 가족문제’에서는 재혼가족, 부부관계,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가족복지’에서는 가족생활과 관련된 법들에 제시되어 있는 정책에 대한 내용과 가족의 상황에 따른 사회적 지원서비스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3)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과 이후의 가족생활 분야의 배점과 비율 비교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의 가족생활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25%), ‘부모 됨과 부모역할’(20.8%), ‘가족관계와 가족문제’(19.5%)에서 높은 출제 비율을 보였으며, 미출제 평가 내용 요소인 ‘결혼과 가족발달’을 제외하고 ‘인간발달 과정’(9.7%)이 가장 낮은 출제 비율을 보였다.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후에도 출제 비율이 높은 평가 내용 요소는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21.3%), ‘가족관계와 가족문제’(21.3%), ‘부모 됨과 부모역할’(19.7%)로, 기존에 높은 출제 비율을 보였던 세 가지 평가 내용 요소의 순서만 약간 바뀌었을 뿐 평가 내용 요소 상에는 변동이 없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임용 상세화 기준’을 기본 잣대로 하여,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2002년도부터 2011년도 현재까지의 10년간의 가정과 임용시험 출제문항을 분석하고 임용 상세화 기준이 평가 내용 요소의 다양화와 균등화의 문제를 해결하였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으로 행해진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정과교육학 분야는,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전체 가정과 임용시험 배점 중에서 30%를 차지했으며, 임용 상세화 기준으로 인해 최근 3년간 35%의 고정된 출제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가정과교육학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은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실제’와 ‘가정과 교육과정의 이해’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정과 평가방법과 실제’가 높았다. 하지만 ‘가정과 교사의 전문성’,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가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활용’의 출제는 낮았다. 특히 ‘가정과교육의 본질’에 대한 문항은 극히 적어서 평가 내용 요소별로 균등하고 다양하게 문항이 출제될 것이 요구된다. 가정과교육학 분야의 배점과 출제 비율을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후 그 이전 보다 몇 가지 평가 내용 요소에서 편중되어 출제되는 문제점이 다소 완화되었다.

식생활 분야의 경우, 2002년에서 2011년까지 전체 가정과 임용시험 배점 중에서 17.5%를 차지하였으며, 최근 2년간 15%의 출제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식생활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조리원리 및 실습’이

가장 많았고, ‘영양과 영양소’, ‘식사요법’, ‘식생활 관리’, ‘식품저장 및 가공’, ‘식품의 특성과 선택’, ‘생애주기 영양’, ‘영양평가 및 교육’, ‘식생활 문화’의 순으로 출제되었다. 식생활 분야의 배점과 출제 비율을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에는 ‘조리원리 및 실습’과 ‘영양과 영양소’의 출제 비율이 높았으며,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후에도 ‘조리원리 및 실습’의 출제 비율은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영양평가교육’, ‘식품 저장 및 가공’, ‘식생활 문화’는 오히려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후에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아, 평가 내용 요소의 편중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다.

의생활 분야의 경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가정과 임용시험 배점 중에서 15%를 차지했으며, 최근 2년간 12.5%의 출제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의생활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의복관리’,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 ‘의복관리’, ‘의복재료의 이해’, ‘의복 디자인’, ‘복식문화’, ‘의복과 환경’,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의 순으로 출제되었다. 의생활 분야의 배점과 출제 비율을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에는 ‘의복 관리’,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 ‘의복재료의 이해’에서 많은 문항이 출제되었으나,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후에는 ‘의복재료의 이해’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 내용 요소들에서 비교적 고르게 문항이 출제되어 평가 내용 요소의 균등화의 문제가 다소 완화되었다.

주생활 분야 경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가정과 임용시험 배점 중에서 11%를 차지하였고, 최근 2년간 12.5%의 출제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주생활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주거생활문화의 이해’, ‘주거환경과 관리’, ‘주거의 선택과 계획’, ‘주거 실내디자인의 실제’, ‘주거와 사회’, ‘주거 실내디자인의 이해’의 순으로 출제되었다. 주생활 분야의 배점과 출제 비율을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에는 ‘주거의 계획과 선택’, ‘주거환경과 관리’, ‘주거생활문화의 이해’에 편중되어 문항이 출제되었으나,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후에는 그동안 가장 낮은 출제 비율을 보였던 ‘주거와 사회’에서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되었다. 하지만 평가내용 요소의 균등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비생활 분야의 경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가정과 임용시험 배점 중에서 12.4%를 차지하였고, 최근 2년간 12.5%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소비생활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을 분석한 결과, ‘가정자원관리’, ‘소비자교육’, ‘가계경제의 이해와 재무관리’, ‘소비문화’, ‘소비자 의사결정’, ‘가정관리 체계’, ‘생애설계와 가정 복지’의 순으로 출제되었다. 소비생활 분야의 배점과 출제 비율을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에는 ‘가정자원관리’와 ‘소비자교육’에서 거의 모든 문항이 출제되었으나,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후에는 ‘가계경제의 이해와 재무관리’와 ‘소비자 교육’에서도 많은 문항이 출제되어 평가 내용 요소의 다양화와 균등화의 문제가 다소 완화되었다.

가족생활 분야의 경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가정과 임용시험 배점 중에서 13.3%를 차지하였고, 최근 2년간 12.5%의 출제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가족생활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별 출제 비율을 분석한 결과,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 됨과 부모 역할’, ‘가족관계와 가족문제’, ‘가족복지’, ‘인간발달 과정’, ‘인간발달 과정’, ‘인간발달의 이해’, ‘결혼과 가족발달’의 순으로 출제되었다. 가족생활 분야의 배점과 출제 비율을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에는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와 ‘부모 됨과 부모역할’, ‘가족관계와 가족문제’에서 많은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후에도 이 세 가지 평가 내용 요소가 문항의 주축을 이루기는 하지만, 이전에 비해 다양한 평가 내용 요소에서 고르게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결혼과 가족발달’이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후 처음 출제되어 평가내용 요소의 다양화의 문제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임용 상세화 기준의 개발은 가정과 중등 임용시험의 평가 영역별 내용 요소의 균등화와 다양화의 문제를 다소 완화하였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표시과목 『가정』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의 주기적인 질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평가 내용 요소는 삭제하

고 필요한 평가 내용 요소는 추가하여 가정과 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정과교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정 수준의 임용 상세화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해마다 전공 분야별로 주로 출제되는 2~3가지의 평가 내용 요소 안에서만 출제되는 경향으로 인해, 미출제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출제 비율을 보이는 평가 내용 요소가 발생하므로, 전공 분야별 평가 내용 요소의 출제 비율 범위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규칙개정 계획(안)**.
-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규칙 일부개정안**.
- 김미경 (2010). **가정과 중등교사 신규임용후보자선정 경쟁 시험 출제문항 분석 - '가정경영·소비자학'영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숙, 채정현 (2007).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가정과 교과교육학 출제 문항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3), 149-168.**
- 김성숙 (2007).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가정과 교과교육학 출제 문항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2011). **영어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문항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남, 조재순, 이해자, 조병은, 윤인경, 채정현 (2004). **중등 가정교사 임용시험의 출제문항 분석. 교원교육, 20(1), 260-271.**
- 김유정 (2004).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의 교사 효능감 유형과 관련 변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선영 (2009). **중등 디자인·공예 교원 임용시험의 출제 경향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2005~2009년 1차 전공 필기시험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인경, 양석순 (2009).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4), 105-125.**
- 여지원 (2009). **정보·컴퓨터 중등교사 임용시험 문항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돈희, 황정규, 윤희원, 조영달, 권오량, 우정호 외 (1994). **교과교육학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이정아 (2008). **중국어 교원 임용시험 문항 분석 및 개선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식 (1993). **교사 신규채용 및 전보제도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장인라 (2010). **2009년도 개정안 전·후의 중등 화학교사 임용시험 출제 경향 비교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석영 (2009). **수학과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평가문항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천수 (2007). **초등 및 중등교사 임용시험 비교 분석**. 한국국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08). **중등학교 교사 표시과목 「가정」 교사 자격기준**.
- 허숙, 신길호, 윤석태, 이강섭, 박남기, 최운실 외 (2004).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
- 교육공무원법 (2011). **교육공무원법.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22&PROM_NO=10634&PROM_DT=20110519&HanChk=Y]
- 대학저널 (2012. 2.14). **“교·사대 입시 인·적성평가 강화된다” 교과부, 교사 신규 채용 제도 개선 방안 확정**. [http://blog.naver.com/asecomm?Redirect=Log&logNo=30131229218]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0년간의 가정과 ‘임용시험 문항’(이하 ‘총 문항’이라 칭함)을 대상으로 분야별 출제 비율 분석, 평가 내용 요소(이하 ‘평가 요소’라고 칭함)에 따른 문항 분석,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과 이후의 분야별 평가 내용 요소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교육학 분야의 분석 결과 총 문항 중 30.9%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최근에는 35%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가 요소별 출제 비율을 보면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실제’(33.2%)가 가장 높았으며, ‘가정과교육의 본질’(3.2%)은 가장 낮았다.

둘째, 식생활 분야의 분석 결과 총 문항 중 17.5%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최근에는 15%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가 요소별 출제 비율을 보면 ‘조리원리 실습’(26.1%)이 가장 높았으며, ‘식생활 문화’(3.7%)는 가장 낮았다.

셋째, 의생활의 분야의 분석 결과, 총 문항 중 15%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최근에는 12.5%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가 요소별 출제비율을 보면 ‘의복 관리’(25.1%)와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25.1%)이 가장 높았으며,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3.0%)은 가장 낮았다.

넷째, 주생활 분야의 분석 결과, 총 문항 중 11%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최근에는 12.5%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가 요소별로는 ‘주거생활문화의 이해’(22.5%)가 가장 높고, ‘주거실내디자인의 이해’(10.7%)는 가장 낮았다.

다섯째, 소비생활 분야의 분석 결과, 총 문항 중 12.4%의 비중을 차지했고, 최근에는 12.5%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가 요소별 출제 비율을 보면 ‘가정자원관리’(34%)가 가장 높았으며, ‘생애설계와 가정복지’(0%)에서는 전혀 출제되지 않았다.

여섯째, 가족생활 분야의 분석 결과 총 문항 중 13.3%의 비중을 차지했고, 최근에는 12.5%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가 요소별 출제 비율은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23.8%)가 가장 높았고, ‘결혼과 가족발달’(2%)은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임용 상세화 기준의 개발은 가정과 중등 임용 시험의 평가 영역별 내용 요소의 균등화와 다양화의 문제를 다소 완화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12년 5월 30일, 논문심사일자: 2012년 6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6월 28일